

# “軍 신뢰 회복하려면 기무사 해체해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무력진압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시민단체들은 9일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은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라며 기무사 폐지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퇴진행동 기록기념위)와 416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700만명이 참여한 촛불항쟁은 전 세계가 평화시위의 상징으로 보고 배우려는

■퇴진 촛불주최측,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서

“구체적 실행계획 담겨...헌법과괴행위·내란음모  
평화시위 상징 촛불, 북한 추종 세력이라 판단”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었다"며 "군은 이를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혁명을 주장하는 집회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건을 보면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헌법

파괴행위이고 친위군사 쿠데타이며, 내란음모"라고 주장했다.

또 "기무사는 댓글공작 개입이나 세월호 참사 피해자·시민들에 대한 사찰에도 관여했다"며 "기무사의 이런 위헌·위법 행위는 여러 차례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됐다"고 강조

했다.

이들은 "기무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를 고려하면 기무사는 쿠데타, 혹은 군의 정치 개입과 떼어 생각할 수 없다"며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무사 불법행위 관련 자료 전면 공개 ▲국회 청문회와 국정위헌·위법 행위는 여러 차례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됐다"고 강조

청와대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시행을 검토"한다고 적시돼있다. 계엄군 총 투입 전력으로는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계획했다. /뉴시스

## 민주당,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 도입 최종결정

더불어민주당이 9일 내달 25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최종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및 당무위원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에 여성 1명을 포함하는 당규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여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5위 남성 대신 여성 최고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여성·노인·청년 등 부문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대신 최고위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는 전당대회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최고위원회에서 여성 할당제 도입을 백지화했다가 사흘 뒤인 6일 다시 부활시켰고, 당무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의결했다.

이울러 지명직 최고위원은 총 2명으로 당대표가 지명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새 지도부는 대표 1명,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원내대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전국 대의원 현장 투표 45%, 권리당원 ARS 40%, 여론조사 15%(국민 10%+일반 당원 5%)로 의결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권위시 중앙위원회에서 보궐선거 실시를 명문화했으며 최고위원 후보자가 9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뉴시스

##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흔들림 없이 추진”

인도 국민방문 기념 현지 언론 사전 서면 인터뷰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포스트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의 한국 정부의 구상과 관련해 “우리는 진솔한 대화와 선의의 조치들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도 현지 언론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 사전에 진행했다가 이날 공개된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구상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들을 조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는 남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평화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아는 인도와 함께 한반도를 포함한 여내 평화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한 문 대통령은 “나와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와 공동 번영의 토대 위에서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남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천명한 ‘신(新) 남북정책’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13억 시장을 보유한 인도를 신 남북정책 구현에 교두보로 삼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인도를 비롯해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아주 중

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래서 작년 취임 직후 인도와 아세안에 최초로 특사를 파견해 저의 강한 기대와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남아시아 국가들과 ‘사람·상생번영·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신 남북정책’의 비전”이라며 “그 중에서 인도는 핵심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자, 유권자 8억 명의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의와 미래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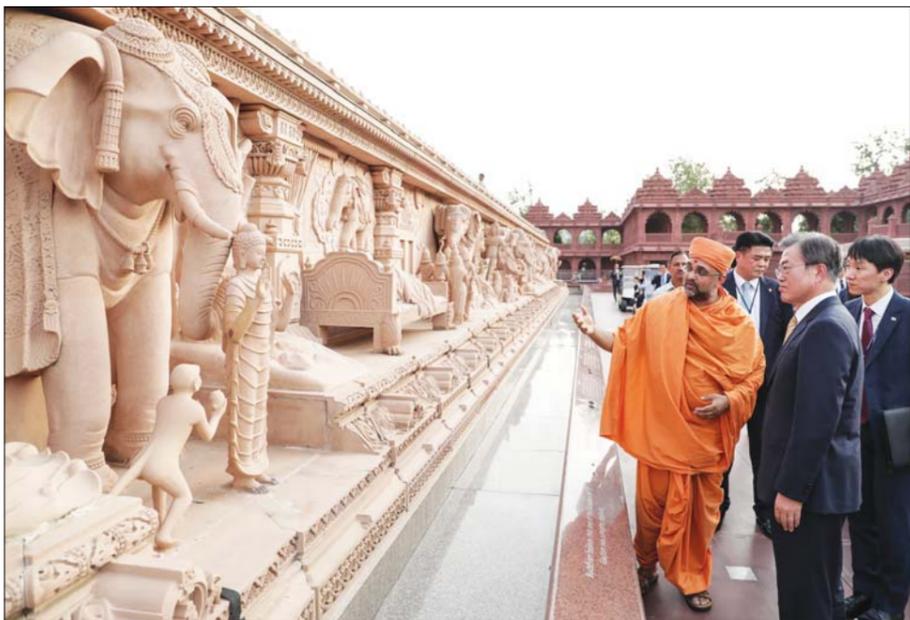
“적극적 동방정책·신 남북정책, 여내 국가들과 협력 지평 확대”

문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 동방정책’과 우리 정부의 ‘신 남북정책’의 연관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와 한국이 정상차원에서 양국 관계 발전은 물론 여내 평화와 번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큰 결실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의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협력 사업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새롭게 수립 중인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역할론에 대해 “인도와 한국을 아우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날이 커지면서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일본·호주 등 많은 국



중고·문화에 대한 존중... 악사르담 힌두사원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악사르담 힌두사원'을 방문하고 있다. 문 대통령 내외가 인도 국빈방문 첫 일정으로 힌두교를 대표하는 성지를 방문한 것은 인도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의미가 있다.

가들이 이 지역에 주목하며 여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인도와 한국 역시 적극적 동방정책과 신 남북정책을 통해 여내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인도 두 나라가 앞으로도 개방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여내 국가들과 조화롭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며 “특히 인도와 한국이 함께 손잡고 여내 위기와 도전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해 나가고, 기회요인을 함께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인도간 경제관계 전망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의 경제 협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인도는 첨단 과학기술, 우수한 인적자원뿐만 아니라 산업생산 능력과 광대한 시장을 갖고 있다”며 “한국이 가진 응용 기술과 경험, 자본과 결합한다면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경제협력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양국의 경제 협력 수준은 시작단계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제조업, 인프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모디 총리가 ‘Make in India, Smart India, Digital India’ 가치 아래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며 “양국 경제협력 강화는 일자리 창출, 균형성장 등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 검찰, 드루킹에 2년6개월 구형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8)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9일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구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범 '서유기' 박모(31)씨와 '둘리' 우모(32)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솔본아르타' 양모(35)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일당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이들에 국한됐지만, 실제로 장기간 다수가 가담한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일당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시민과 소통하는  
**제8대 익산시의회**

우리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새롭게 출범합니다.**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

**제99회 전국체육대회**  
THE 99th NATIONAL SPORTS FESTIVAL  
2018. 10. 12(금) - 18(목) 7일간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THE 38th NATIONAL PARA GAMES  
2018. 10. 25(목) - 29(월) 5일간

**주개최도시 익산**